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空間構造에 關한 研究”

최 일
건축학과
(1982. 10. 30. 접수)

〈요 약〉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2가지 측면 즉 통로적 측면과 장소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Upper-Class Residences of Chosun Dynasty

Choi Il

Dept. of Architecture

(Received October 30, 1982)

〈Abstract〉

Study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upper class residences of Chosun Dynasty, We can analyze it in two aspects of path and place.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住居는 그 類型과 機能에 있어서 時代와 地域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日常生活에서 社會나 自然으로의 “出發과 回歸의 場所”인은 不變의 事實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住居는 生活과 空間이 서로 相應해야 하며, 이러한 住居空間은 人間性의 요람이며 身體의 延長體⁽¹⁾로서 人間の 精神構造의 相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歷史를 通하여 볼 때 住居建築은 가장 느린 변화를 하며 가장 강한 連續性을 갖는 有機體的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傳統住居建築은 歷史를 累積하면서 形成된 建築物이라는 집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

러한 歷史性에 의해 傳統住居는 오랜 時間과 많은 사람을 一貫하는 普遍的이고 基本的인 精神, 心理, 生理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며, 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인 도태되고 저할한 것만이 선택 유지되고 여기에 보다 복합적인 次元이 첨가 변형되는 過程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傳統住居建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가지고 있는 優秀性을 認定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表現하거나 受容하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具體的인 方法을 갖고 있지 못하며, 우리가 優秀하다고 느끼는 것은 現象에 대한 直觀에 미루르고 있을 따름이다.

本 研究는 現存하는 傳統住居樣態의 根源的인 動機나 形成要因에 대한 精確한 판단은 보류하고, 傳統住居建築이 어떠한 空間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그 空間이 상호간에 어떠한 連關係를 가지고 形成되었는가를 分析해 봄으로써, 韓國建築史의 史的 體

(1) O.F. Bollnow, “現代哲學의 展開”, 韓國哲學會編, p.42, 法文社, 서울(1973).

를 定立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空間의 分析을 통한 傳統住居論의 定立에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研究의 進行은 일반적인 建築論에서 住居가 갖고 있는 空間的 要素를 밝히고, 그러한 要素들이 傳統住居建築에서는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闡明한 다음, 이러한 要素들이 現存하는 傳統住居建築物中에서 몇 개의 住宅을 見出し 見정된 住宅에 對해서 分析함으로써,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造를 파악하고자 한다.

見정대상 建築物은 다음과 같은 背景下에서 見정하고자 한다.

⊙ 現存하는 傳統住居建築物中에서 建立年代가 오래되었으면서도 비교적 그 構造가 잘 保存되어 있는 住居.

⊙ 住居 結定因子로서 중요한 社會, 人文, 地理의 變數를 固定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背景下에서 分析對象 建築物은 朝鮮時代 中期 上流住宅中에서 京畿道 地方의 河回, 良洞, 의인의 3개 마을에서 다음과 같은 5개의 住宅을 選定하였다.

- ⊙ 安東 河回: 義眞堂, 忠孝堂
- ⊙ 月城 良洞: 香院, 觀稼亭
- ⊙ 의인 삼마을: 변남宅

II. 住居의 空間的 構成要素

Norberg-Schulz는 中心과 場所, 方向과 通路, 領域의 要素를 갖는 空間은 實으로 人間이 자신의 實體를 파악할 수 있는 主體性(identity)을 부여한다고 하였다.⁽²⁾

場所의 概念에는 內側과 外側의 意味가 들어가 있으며, 하나의 場所만 보다 넓은 脈絡속에 位置된 (situated) 것이며 그것만을 別個로 거내어 解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모든 場所에는 方向(direction)이 갖추어져 있다. 方向을 갖지 못한 場所는 아무런 拘束도 없이 Euclid 空間을 떠 다니는 球體가 될 뿐이다. 따라서 方向이 갖추어진 場所에는 方向의 目標을 示하는 中心이 위치하게 된다.

人間이 환경을 手中에 넣는다는 것은 항상 자기

가 居處하는 場所로 부터 떠나는 것은 意味하지만, 스스로의 目的과 자기가 갖는 환경의 Image에 의해서 方向이 정해지는 中心을 향한 通路를 踏하는 旅行을 나타낸다. 이러한 “나”이란 人間の 活動方向을 보이면 “나”란 지점까지 걸어서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通路란 人間の 實存의 一한 基本的인 性質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人間の 居는 중요한 根源的 要素의 하나일 것이다. 즉 通路는 確切한 곳과 未確인 것과의 사이에 作用하는 力量을 包含하고 있으며, 出發과 歸着이라는 起點의 2개의 點은 空間을 內側과 外側의 2개의 同心圓狀의 領域으로 分割한다. 外側보다 좁은 內側을 居住의 故郷의 領域이라 人間은 거기서 부터 보다 廣闊한 外側의 領域으로 나아가고 또 거기서 부터 다시 돌아온다. 따라서 모든 通路는 連續性이라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³⁾

例를 들면 場所는 그것을 限定하는 諸要素를 가운데서 近接性, 즉 閉合性에 의해서 결정의 되고 通路는 線的인 連續體로서 Image된다.

이러한 事實에 대해서 Kevin Lynch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사람들은 通路의 出發點과 目標을 생각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들은 通路라는 것이 어디로 부터 시작 어느 곳으로 사람의 움직이 가려 하는 가를 알고 싶어 했다. 出發點과 目標이 明確하게 잘 알려져 있는 通路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강한 主體性(identity)을 갖고 觀察者에게는 그 通路를 거닐 때에는 언제나 자기의 位置를 판단할 수 있는 感覺을 주었다.”⁽⁴⁾

通路는 人間の 環境을 여러 區域으로 分割한다. 이같이 質적으로 限定된 區域은 領域(domain)이라 한다면 領域은 비교적 構造化되어 있지 않은 地(ground)라고 定義할 수 있는데 이러한 地에 있어 비교적 明白한 特徵을 갖춘 點으로서 場所의 通路가 나타나게 된다.

住居에 이러한 概念은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마을內에 하나의 住居가 位置하게 되면 그 住居는 自體의 領域을 形成하게 되며 이러한 領域內에 하나의 中心을 향해 建物들이 場所性을 갖고 나타나게 되면 住居밖, 즉 外側에서 居住와 故郷의 領

(2) Christian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金光鉉譯, p.59. 建築學社 建築學社, 서울(1977).

(3) Christian Norberg-Schulz, Op Cit, p.71~p.76.

(4)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p.54, M.L.T. Press. (1974).

域, 즉 內側으로 移動을 나타내는 通路의 性向을 띠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住居는 全體空間의 構成要素로써 領域을 形成하게 되며, 中心을 갖춘 즉 方向을 갖는 場所와 線的인 連續體로서의 通路의 2가지 空間構成要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傳統住居建築에서의 場所와 通路

住居가 갖고 있는 場所와 通路의 概念은 傳統住居建築에 많은 영향을 끼친 風水地理思想에서도 그 일면이 보인다.

風水地理에서 局이라 함은 穴과 砂를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로 둘러싸인 하나의 領域을 표시한다. 穴은 局의 中心으로 生氣가 모여 人間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場所이다. 明堂은 穴앞을 말하는데 陰宅에서는 墓가 穴이고 墓板이 明堂이며, 陽宅에서는 穴이 主建物이고 明堂이 前庭이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穴과 明堂은 局內에서 가장 높은 位階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中心으로한 求心力을 상상할 수 있다.

종교학자인 Eliade는 中心이 갖는 構造上의 象徵機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聖山(Sacred Mountain)—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이 세상의 中心에 자리잡고 있다.

◎ 모든 寺院이나 宮殿—이를 더 확대하면 모든 聖都나 王의 住居地까지 包含하여—은 聖山이다. 그러므로 中心이 된다.

◎ 聖都나 寺院은 地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늘과 땅 그리고 地下界가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지점으로 간주되고 있다.⁽⁶⁾

林忠伸氏는 이러한 Eliade의 中心概念을 風水地理에 도입하여 Eliade의 小宇宙(micro cosmo)와 風水地理의 局이 같은 領域의 概念을 가지고 있으며 垂直的 要素인 Center가 風水地理上의 山, 특히 主山에 위치한다고 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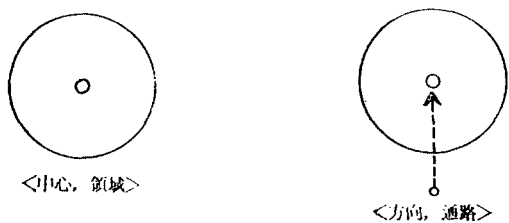
局面의 內에서 볼 때 穴과 明堂이 局의 中心을 차지하여 都市, 宮闕, 寺刹 또는 住宅에서 穴은 일체

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Eliade는 都市나 寺院, 家屋 등은 그것들이 “世界的 中心”에 자리잡고 그 中心과 일치할 때 實在的이게 된다고 하여 古代人에게 있어서 實在한 天空의 原型(Celestial Architype)의 모방기능이라 하였다.⁽⁸⁾

이러한 中心의 概念에 의거한 風水地理의 局의 概念을 傳統住居建築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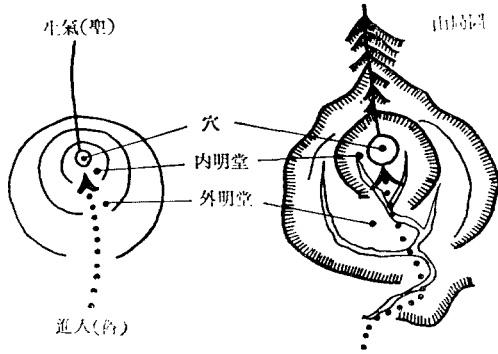
傳統住居建築의 基本形態인 卍字型 집모 하나의 局으로 볼 때 大廳이 主山집 穴이고 양쪽의 建物이 左青龍, 右白虎, 大門이 水口이며, 中庭이 바로 明堂인 것이다. 卍字型집 주위에 담이 쳐 있으면 집이 穴이 되고 마은 집안이 明堂이 되는 등의 位階가 나타난다. 여기서 各 位階를 連結하는 2가지 要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地脈이며, 또 하나는 水이나 道路를 타고서 4 단계를 連結하는 通路이다. 그러므로 穴과 明堂은 象徵的인 氣의 軸과 世俗的인 通路의 軸이 만나는 場所라고 할 수 있다.⁽⁹⁾ 실제 우리의 住宅에서는 聖의 中心은 穴인 大廳이 되고 明堂인 中庭은 俗의 世界의 總軸점이 되어 中庭과 大廳사이에는 聖과 俗의 世界를 媒介하는 傳統的인 特有的 空間이 形成되어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傳統住居建築에 있어서 中庭, 즉 마당과 大廳이 이루는 空間이 핵심이 된다는 것을 뜻하여 住居의 中心 또한 大廳과 마당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成은 住居 自體가 하나의 局으로서 領域을 形成하고 있으며 마당과 大廳은 中心으로 한 場所의 要素와 마당과 大廳에 까지 外部에서 進入되는 過程인 通路의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住居空間內에서의 通路와 場所의 分類는 概念



<圖 1>

(5) 孫科浩, “한국의 傳統住居에서의 風水思想과 그 建築의 解析에 關한 研究”, p.8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0).
 (6) Mircea Eliade, “Cosmos and History”, 鄭鎮弘譯, p.26~p.27, 現代思想社, 서울(1976).
 (7) 林忠伸, “母空間의 原型: 山과 天”, p.33, 울산공예 연구논문집 제8권 2호(1977).
 (8) Mircea Eliade, Op Cit, p.17.
 (9) 孫科浩, Op Cit, p.94~p.95.

상으로 바깥의 境界로 하여 分類된 수 있다. 따라서 마당은 通路와 場所의 二元의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圖 2〉 風水의 領域과 中心概念의 圖式

Ⅶ. 傳統住居建築에서의 檢證

空間은 生活을 受容하는 그릇이므로 空間構造와 機能이 일치할 수록 生活은 풍부해진다. 그러므로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成要素와 生活機能이 서로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選定한 建築物들 위에서 設定한 概念下에서 分析해서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造를 파악하고자 한다.

1. 空間과 機能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空間構成은 크게 나누어 안채와 사랑채로 區分되며 각각의 채(棟)마다 房과 大廳이 있으며 그 앞에 展開되는 마당을 갖고 있다. 그리고 행랑채와 행랑마당, 별당과 별당마당, 정자, 사당 등이 副의인 構成要素로 되어있다. 따라서 内部空間은 안방, 안대청, 사랑방, 사랑대청으로 代稱되어질 수 있으며 外部空間은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内部空間과 外部空間은 各個의 主된 生活機能을 가지고 있다.

四象醫學者 東武 李濟馬는 住居生活의 4가지 機能은 다음과 같이 四象으로 分類하고 있다.

○ 居處：具體的으로 安住하는 個人生活로 休息과 安定 등을 基本으로 한다.

○ 黨與：一次的으로 맺어지는 血緣, 親族간의 關係. 親族을 한계로 밖으로는 닫히고 안으로 열리는

것.

○ 交遇：利害關係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완전히 열리고 私的인 것은 미뤄야 한다.

○ 事務：個人的이거나 公的인 실권자형이므로 外的인 대상과 인연을 맺으나 內實을 기해야 하는 것.⁽¹⁰⁾

이러한 機能分類를 住宅에 적용시켜 보면 안채는 個人生活의 休息과 安定을 基本으로 하는 居處와 血緣, 親族間的 關係인 黨與의 生活을 受容하며, 사랑채는 外部사람과의 親交인 交遇와 公的이거나 私的인 실권자형인 事務의 生活을 受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時代 住宅의 대부분이 木造이며 單層이어서 内部空間이 험소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建物앞에 놓여져 있는 마당이 内部空間의 隘소한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진밀한 연결關係를 맺고 있다.

住居內에서의 生活의 中心은 안채와 사랑채이며 이는 空間의 概念下에서의 住居의 中心要素인 마당과 大廳이 生活機能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生活機能과 관련된 場所의 概念下에서의 사랑채의 空間의 特性은 開放的인 性格, 즉 遠心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안채는 閉鎖的인 性格, 즉 求心性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生活機能과 연관시켜 場所의 概念下에서 파악한 傳統住居의 空間의 特性은 外部에서 住居內로 引入되는 過程, 즉 通路의 概念下에서의 파악되는 空間의 特性에까지는 同一視할 수는 없다. 특히 문→마당→大廳으로 이어지는 空間의 變化過程은 視點의 變化에 따라 多樣한 모습은 보여 주고 있으며, 마당을 앞에 展開되는 모습(進入時의 모습)과 뒤의 모습(生活機能의 場所로서의 모습)은 尙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2. 分析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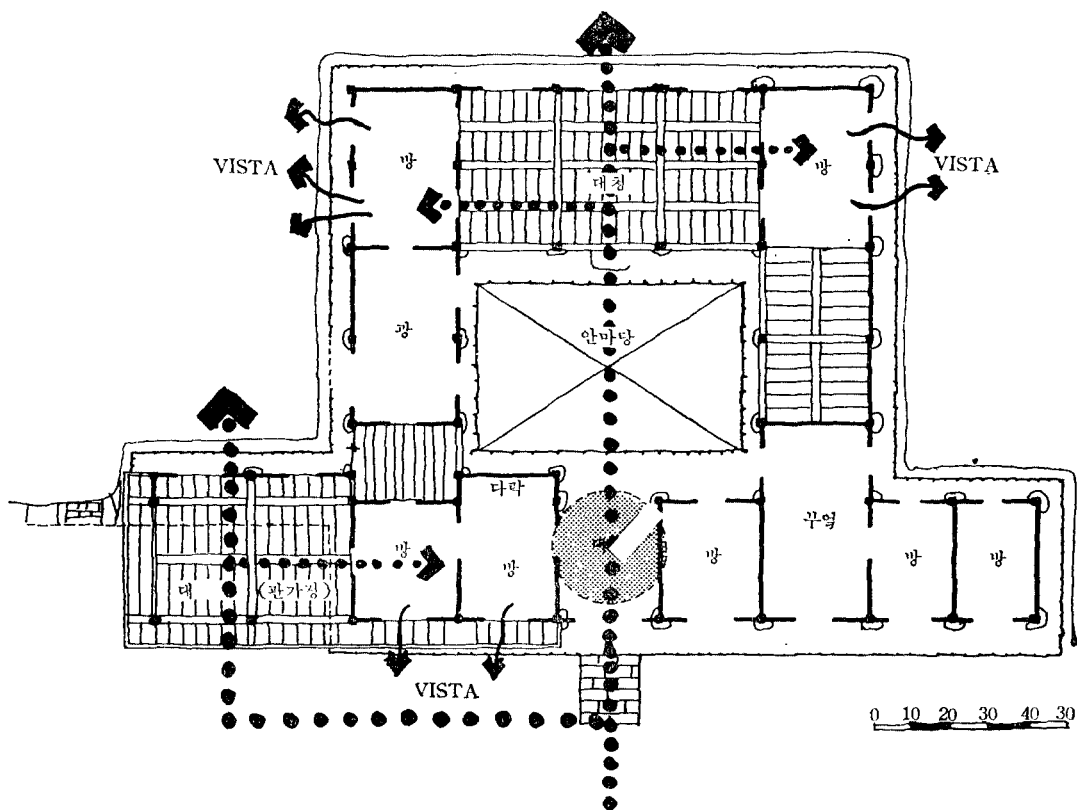
實測調査된 기존의 보고서를 土臺로 選定된 5개 住居의 平面圖, 斷面圖에서 住居空間 構成要素의 連結關係를 場所의 概念과 通路의 概念下에서 分析하여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造를 파악하고자 한다.

傳統住居建築에서는 進入에 있어서 反復해서 使用되는 通路가 있고, 이 通路는 諸要素를 組織하는 中心軸으로서의 機能을 갖는다.⁽¹²⁾ 이러한 軸을

(10) 李元教, "傳統住居建築에 관한 研究", p.53,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0).

(11) 宋寅家, "口字型 傳統住居建築에 관한 研究", p.28~p.3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2).

(12) 金光鉉, Merleau-Ponty의 現象學으로 照明한 한국 傳統住居建築의 空間認識 特性에 관한 研究" p.10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7).



〈圖 3〉 觀 緣 亭 平 面 圖

벗어나 있는 側面이나 背面은 重視되지 않고 正面만이 注視된다.⁽¹³⁾ 따라서 通路는 方向性을 갖게되며 分析圖面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마당을 中心으로 大門—원층공간—中門—마당—大廳의 軸을 形成하고 있다.

外部에서 個人的 居住處로 돌아오는 過程에서 먼저 나타나는 大門은 문지방(Threshold)의 役割, 즉 領域의 限界를 나타내며 바깥세계와 내부의 個人的 世界를 연결하는 通路의 役割을 하고 있다.⁽¹⁴⁾ 大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담장으로 閉鎖되어 있어 住居 自體의 강한 領域感和 더불어 外的 閉鎖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外的 閉鎖性에 의해 住居는 物體的인 要素로 나타나며 다른 주변의 住居와 더불어 全體空間의 物體要素로 作用하여 外部空間을 形成하게 된다.

大門을 들어서면 生活의 中心인 마당과 大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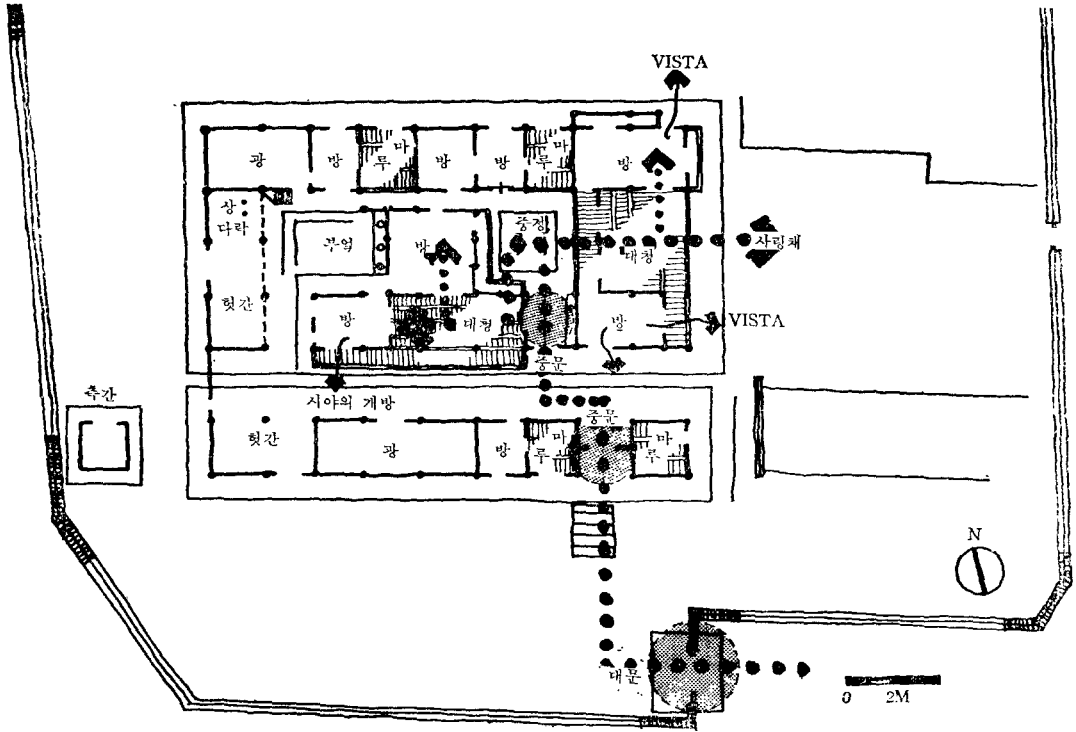
移動되는 過程에서 緩衝의 役割을 하는 하나의 마당이 나타난다. 대부분 이러한 마당은 행랑채와 더불어 행랑마당으로 존재하는데 生活機能上으로 보면 작업공간과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의 通路的 空間의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의 連結이 반드시 中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中門은 大門을 들어서면 視覺의 中心에 놓여 있어 강한 方向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 空間으로의 移動性을 나타내고 있다.(분석도면 참조)

中門을 들어서면 안마당 또는 사랑마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마당들의 空間感은 강한 閉鎖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강한 閉鎖感은 終着地에 도달했다는, 즉 生活의 中心으로의 移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意味하기 위한 空間的인 배려라고 생

(13) 金寬錫, “韓國 住居建築에서의 體驗構造에 關한 研究” p.6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0).

(14) 申載億, “建築의 象徴的 側面에 對하여” p.344, 울산공과대학 연구논문집 제12권 제2호(1981).



〈圖 4〉 香壇 平面圖

과된다.

그러나 일단 移動이 완료되면 이제까지 通路의 役割을 하던 마당의 機能은 生活의 中心處인 場所의 役割로 바뀌게 되며 마당의 空間感도 變化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分析圖面中 斷面 Diagram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一次視點에서의 知覺되는 空間의 크기에 비해서 二次視點에서 知覺되는 空間의 크기는 상당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斷面 Diagram 참조) 따라서 閉鎖感도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閉鎖感의 감소는 傳統住居의 内部空間이 構造上의 이유로 인하여 狹小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狹小함을 解消하기 위하여 마당의 주위에 있는 物體의 要素들(房, 大廳, 부엌)의 開閉여부와 더불어 生活機能에 부합되기 위한 空間의인 배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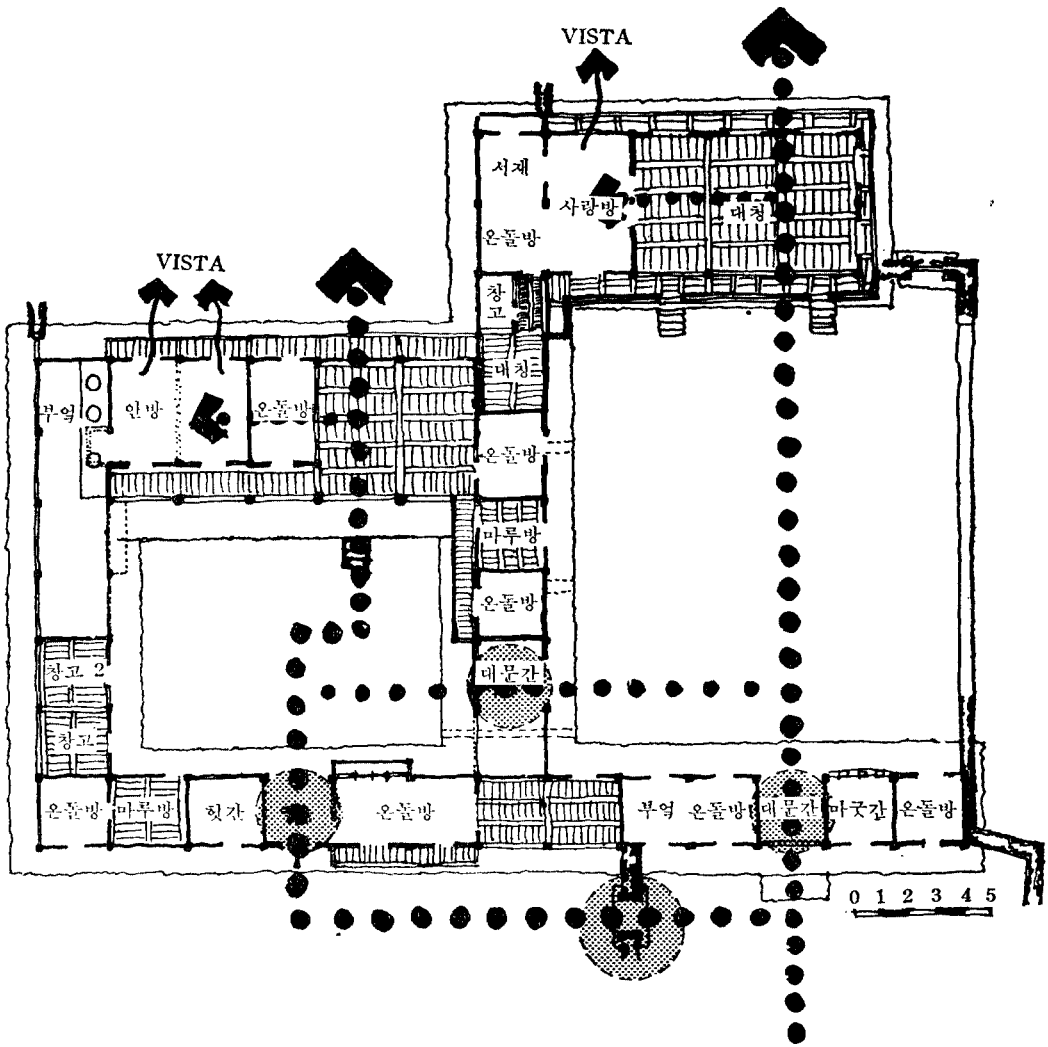
마당은 그 주위에 있는 物體要素들의 表面에 의해 그 形式이 결정되며, 그러한 形式은 分析圖面(평면分析圖 참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당을 中心으로 物體要素들이 開放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5) 宋寅象, Op Cit, p.31.

마당을 中心으로 모든 物體는 마당을 향해 收斂하는 힘의 方向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動線은 마당에서 부터 配分되고 다시 收斂되며, 虛體인 마당은 核으로 하여 物體들이 線의 構成을 이루고 있어 안을 향하는 求心성과 더불어 內的 開放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마당을 構成하는 重要한 物體要素인 房과 大廳은 사랑채와 안채의 경우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生活機能上의 차이로 인하여 그 앞에 전개되는 마당과 더불어서 場所의 概念下에서는 空間의 特性이 相反되게 나타나게 되지만 通路의 概念下에서 보여지는 마당의 空間의 特性은 사랑마당과 안마당의 경우가 類似한 것을 알 수 있다.

房과 大廳은 마당과 면하고 있는 부분과 後園, 즉 住居의 背景을 이루고 있는 山과 면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마당과 면하고 있는 부분의 開放度는 다른 부분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門의 位置가 분담문으로 되어 있어 문을 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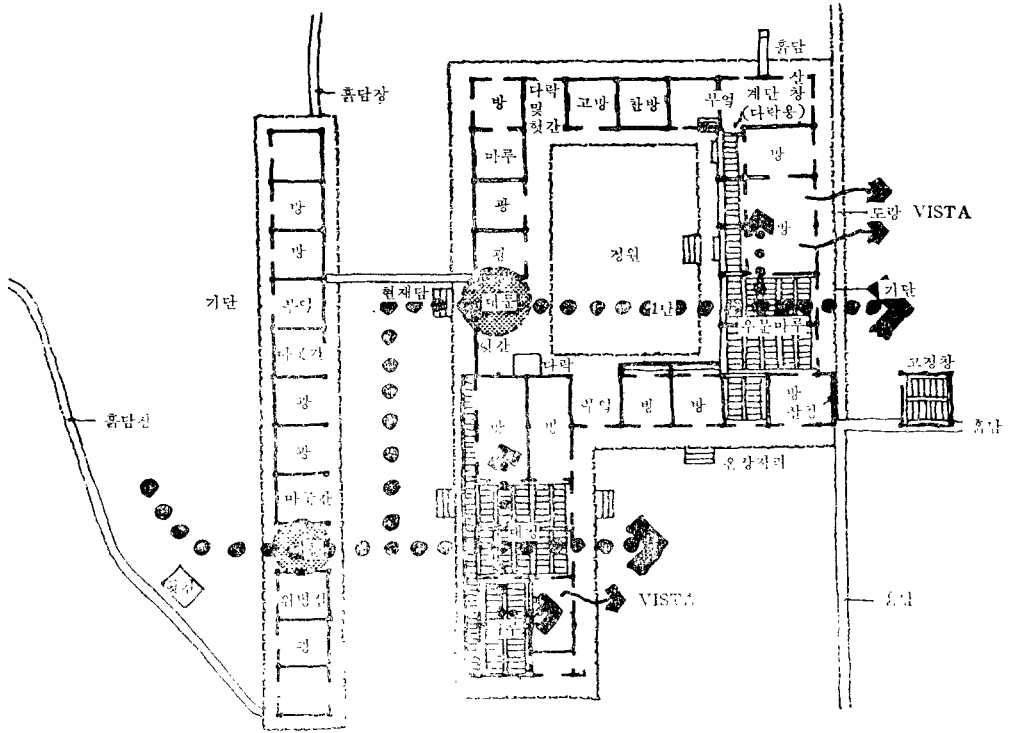
〈圖 5〉 養眞堂 平面圖

어서 들쳐매 매달게 되어 있어 마당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어 필요에 따른 空間의 融通性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房의 경우 主機能이 個人的 居處인 극히 私的인 곳이어서 privacy 확보가 필요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마당과 먼하고 있는 문은 閉鎖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内部空間의 狹小함을 보완하기 위해 公的인 곳이 아닌 私的인 혹은 自然과 접할 수 있는 곳으로의 확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마당과 먼하지 않는 반대편 부분은 作居의 背졌을 이루

는 山이나 山과 직접 면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後園을 造成하여 門의 開閉여부에 따라서 空間의 融通性을 확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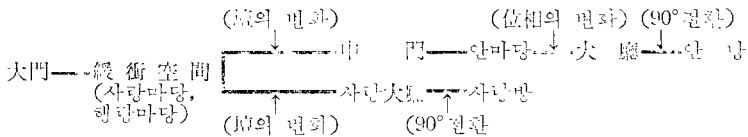
房과 大廳과의 관계는 視點이 大廳과 마당의 視點과 90° 交叉되어 房의 privacy를 保存하고 있으며 연결방법이 門에 의해서 이루어 지므로 각자의 主體性(identity)를 확보하면서 生活機能上 空間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면 門의 開放에 의해서(이 경우 대부분 門을 扃닫이 門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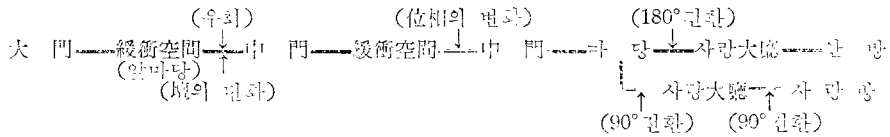
〈圖 6〉 忠孝堂 平面圖

〈動線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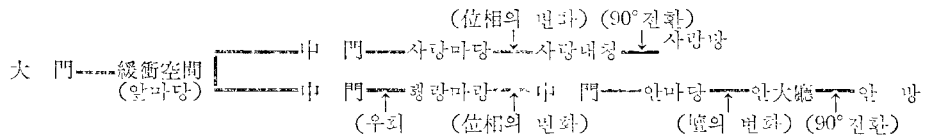
◎ 觀 豫 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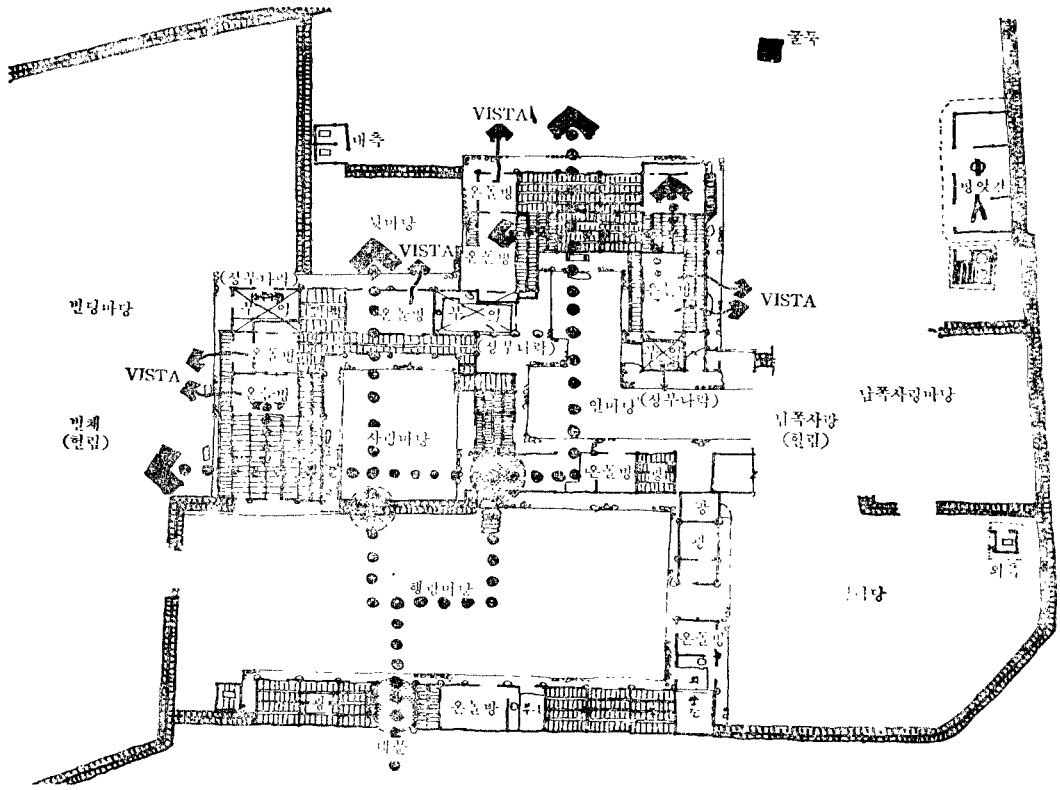


◎ 香 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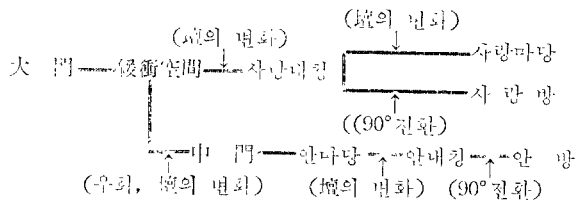
◎ 從 眞 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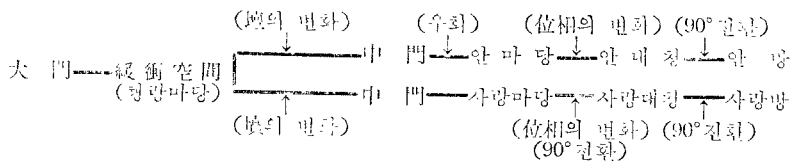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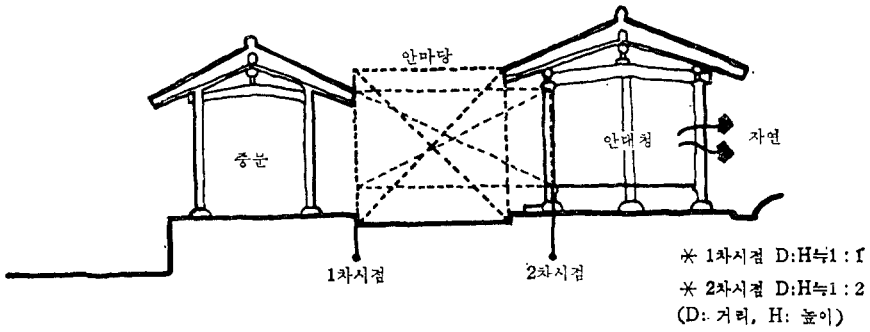
〈圖 7〉 빈남宅 平面圖

○ 忠孝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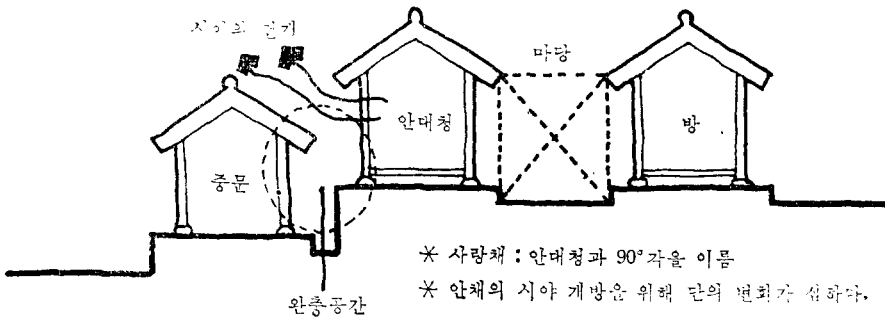


○ 빈남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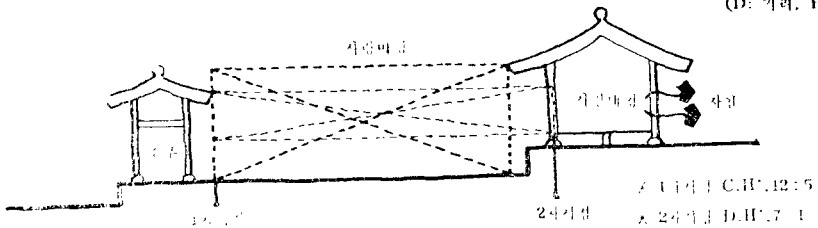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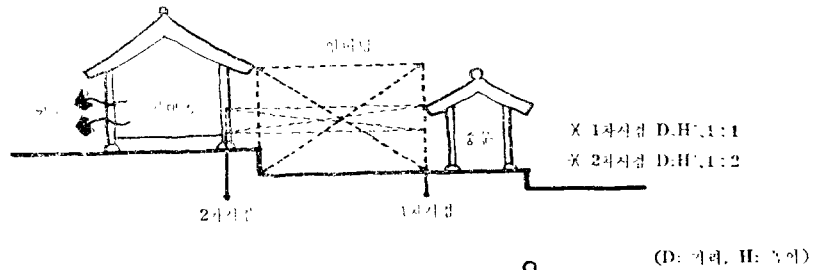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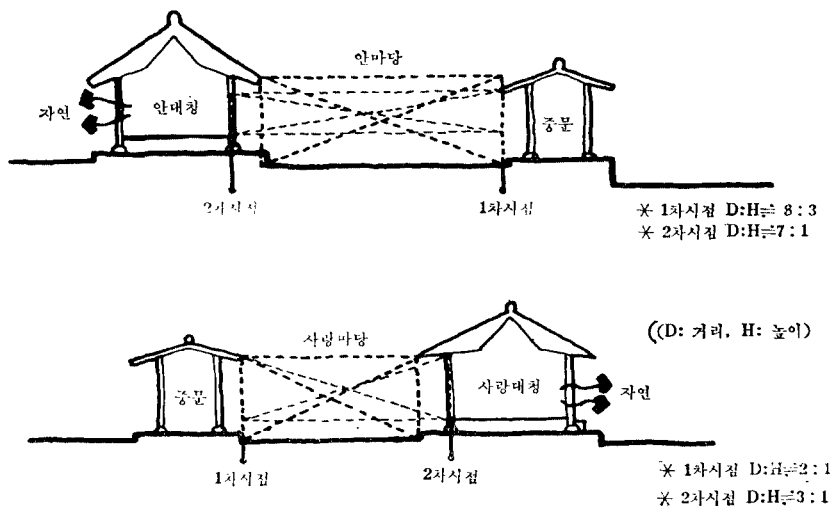
〈圖 8〉 觀稼亭 斷面 Diagram



〈圖 9〉 香壇 斷面 Diagram



〈圖 10〉 養眞堂 斷面 Diagram



〈圖 11〉 번 날宅 斷面 Diagram

大廳의 경우 마당과 먼하고 있지 않은 반래편 부분은 받드시 벽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門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은 空間의 融通性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住居의 象徴적인 中心인 山의 地脈과 通하라는 배려로 보여진다.

V. 結 論

이상의 考察로 住居의 空間構成 要素로는 中心을 갖은 場所의 通路가 存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住居의 空間構成 要素들은 우리의 傳統住居 建築에서도 同一하게 存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概念下에서 볼 때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成은 住居 自體가 하나의 局으로서 領域을 形成하고 있으며 住居의 中心은 마당에 位置하며 마당, 大廳과 房을 中心으로한 場所의 要素와 中心을 向해 進入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通路의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住居空間內에서의 通路와 場所의 分類는 概念上으로 마당을 境界로 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당은 通路와 場所의 二元의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選定對象 建築物에서 分析한 바의 같이 傳統住居 建築의 空間構造는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 住居全體로 볼 때 마당을 求心體으로 하는 內

的 開放性을 가지며 住居自體의 領域感과 더불어 外的으로는 閉鎖性을 갖는다.

○ 住居內에서는 大門을 境界로 外部의 세계와 内部의 세계가 구분지어지며 마당까지 進入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通路의 側面에서의 空間變化는 중간過程에 緩衝의 役割을 하는 부분이 存在하고 있으며 마당까지의 空間의 連結은 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空間感이 점차로 상승되어 마당에 이르어 극에 달하게 된다.

○ 虛體인 마당과 物體인 房과 大廳에 의해서 構成되는 사랑채와 안채는 生活機能과 관련된 場所의 概念下에서는 사랑채는 遠心性, 안채는 求心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당의 形式을 結定하는 物體要素인 房과 大廳은 각각의 主體性(identity)을 가지고 있으면서 門의 開閉여부에 따라 空間의 融通性을 확보하게 된다.

參 考 文 獻

鄭寅剛,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서울(1980).
 宋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서울(1980).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서울(1981).
 安瑛培,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寶賢齋, 서울(1980).
 정상복도, “良洞마을 調査報告書”, 乙支社, 서울

- (1979).
- 김상복도, “河回마을 調査報告書”, 乙支社, 서울 (1979).
- 울산공과대학 건축학과, “의인·심마을—안동남 수문지주 취락형태 현지조사—”, 울산공과대학 연구논문집 제7권 제2호.
- 林忠伸, 母空間의 原型 “산과 天”, 울산공과대학 연구논문집 제8권 제2호(1977).
- 申載億, “建築의 象徴的 側面에 대하여”, 울산공과대학 연구논문집 제12권 제2호(1981).
- 孫科浩, “한국 傳統住居에 示의 風水思想과 그 建築的 解析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0).
- 金光鉉, Merleau-Ponty 의 現象學으로 照明한 韓國傳統住居建築의 空間論的 場所性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7).
- 金寬錫, “韓國住居建築에 示의 體驗構造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0).
- 李元教, “傳統住居建築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0).
- 宋寅豪, “口字型 傳統住居建築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2).
- Christian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金光鉉譯, 韓國도시건축사, 서울(1977).
- Mircea, Eliade, “Cosmos and History”, 柳鎮弘譯, 現代思想社, 서울(1976).
-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M.I. T. Press(1974).
- O.F. Bollnow, “現代哲學의 展望”, 韓國哲學會編, 法文社, 서울(1973).